

2025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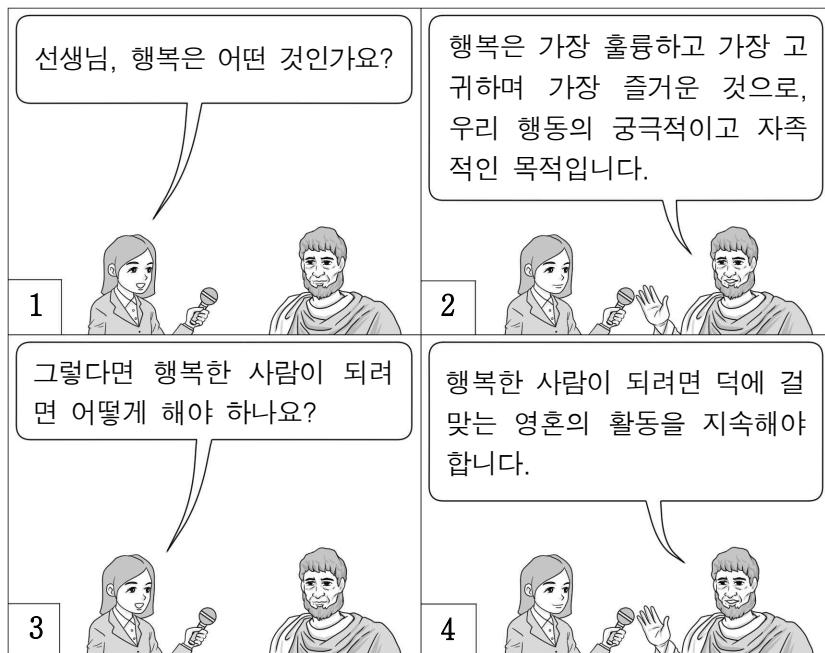
성명

수험번호

2

제 [] 선택

1.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와의 가상 인터뷰이다.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쾌락이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임을 깨달아야 한다.
- ② 부와 명예의 획득을 삶의 최종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 ③ 인간의 이성에 따르는 유덕한 행위를 습관화해야 한다.
- ④ 영혼에서 감정이나 욕구와 관련된 품성을 제거해야 한다.
- ⑤ 지식을 쌓는 것은 그 자체로 궁극적 행복임을 알아야 한다.

2.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⑦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인간의 새로운 기술적 행위 능력은 그 거대한 힘으로 인해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책임을 강요하게 된다.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나)	질문자: 현세대는 기술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요? 사상가: ⑦

<보기>

- ㄱ. 기술이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ㄴ. 기술이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윤리적으로 숙고해야 합니다.
- ㄷ. 기술로 확장된 권력의 크기에 비례하여 책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 ㄹ. 기술 발전의 결과에 대해 현세대와 미래 세대는 호혜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3. ⑦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비자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환경 보호, 동물 복지, 노동자 인권 등을 고려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소비자가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가격, 품질,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효용 성만을 추구하는 소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⑦을 간과한다고 생각한다.

- ① 소비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수 있음
- ② 개인의 소비 행위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③ 소비 과정에서 가격뿐만 아니라 윤리적 가치도 고려해야 함
- ④ 소비의 합리성을 위해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음
- ⑤ 항상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소비의 윤리성이 확보될 수 있음

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성인(聖人)은 무위(無爲)로써 일을 처리하고 불언(不言)의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이 어떤 것을 일으켜도 말하지 않고, 무엇인가 내놓아도 있다고 하지 않으며, 무엇을 시행해도 그 것에 의지하지 않고, 공(功)을 이루어도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이 떠나가지 않는다.

- <보기>
- ㄱ. 각자의 고유한 가치에 따라 만물의 위치를 정해야 한다.
 - ㄴ. 인위적 규범을 체득해야 자연의 균원을 변화시킬 수 있다.
 - ㄷ. 도(道)는 스스로 그려하며[自然] 그 쓰임은 무궁무진하다.
 - ㄹ. 만물을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겸허의 덕을 갖춰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순수 실천 이성은 우리가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할 것을 의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의욕하는 바는 오직 의무가 문제시될 때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

인플루언서 A는 온라인에서 주목받는 것을 즐긴다. A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SNS에 올릴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 ① 허위 영상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계산하여 결정하세요.
- ② 사람들의 자연적 경향성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행동하세요.
- ③ 자신의 영향력이 증진되도록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세요.
- ④ 어느 누구의 인격도 수단으로만 대하면 안 됨을 명심하세요.
- ⑤ 정보 통신법에 부합하는 행위가 곧 도덕 행위임을 기억하세요.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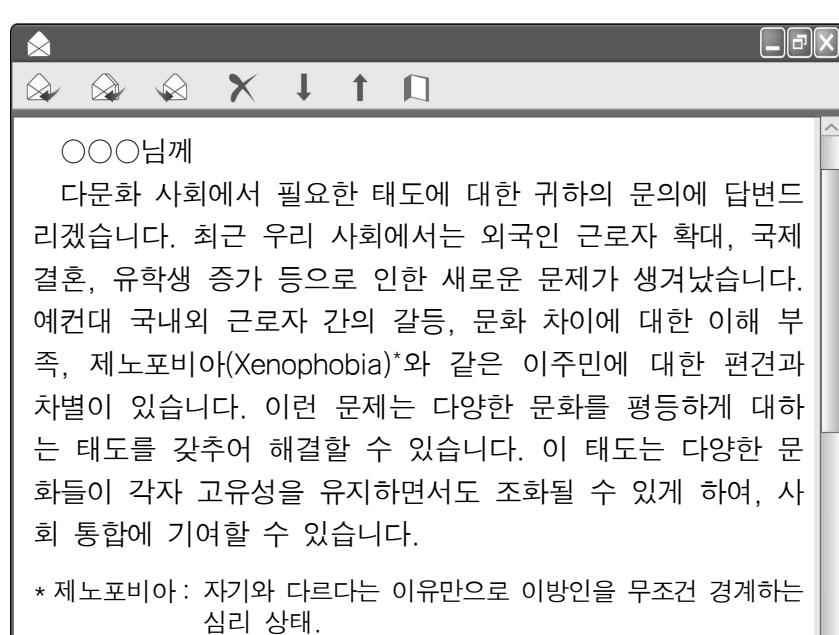
고 2

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원초적 상황에서의 사람들은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서 평등을 요구한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최소 수혜자에게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p> <p>을: 소유물에서의 정의는 역사적인 것이다. 취득의 원리는 소유되지 않은 것들의 자유화를 다루며, 이전의 원리는 소유물의 이전을 다룬다. 교정의 원리는 불의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p>
(나)	

< 보기 >		
ㄱ. A : 사회적 이익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분배만이 정의로운가?	② ㄱ, ㄹ	③ ㄴ, ㄹ
ㄴ. B :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해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ㄷ. B : 기본적 자유는 절대적인 것으로 무제한 허용되어야 하는가?		
ㄹ. C : 국가는 불의를 시정하기 위해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가?		

7. 다음 가상 전자우편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주류인 이주민 문화를 주류 문화에 동화시켜야 한다.
- ②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열을 확립해야 한다.
- ③ 서로 다른 문화가 각자의 특수성을 유지하며 공존해야 한다.
- ④ 사회 통합 실현을 위해 이주민 문화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 ⑤ 이질적 문화를 모두 융합하여 문화 정체성을 단일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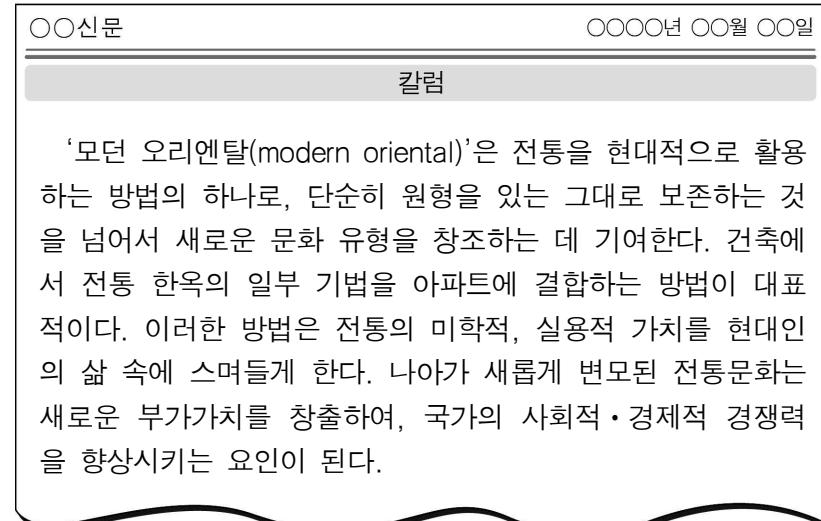
8.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세계화는 전 세계의 문화를 획일화한다. 국경을 초월한 문화의 확대는 선진국의 상품화된 문화가 시장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것일 뿐이다.

을: 세계화는 전 세계의 문화를 다양화한다. 문화는 한 방향으로 전달되지 않으며, 국경을 초월하여 상호 영향을 준다.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융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① 문화 세계화는 지구촌의 문화 다양성 보전을 저해시키는가?
- ② 문화 세계화는 일방적 전달이 아닌 상호 교류로 이루어지는가?
- ③ 문화 정체성을 버린 국가만이 문화 세계화에 동참할 수 있는가?
- ④ 문화는 소비 가능한 상품으로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⑤ 문화 세계화는 선진국의 문화를 개발도상국으로 전파시키는가?

9. 다음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의 모든 문화적 요소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 ② 모던 오리엔탈의 양식은 현대인의 삶과 양립할 수 없다.
- ③ 전통에서는 미적 가치 이외에 실용적 가치를 찾을 수 없다.
- ④ 과거의 문화를 원형 그대로 고수해 전통문화를 지켜야 한다.
- ⑤ 전통과 현대의 문화를 결합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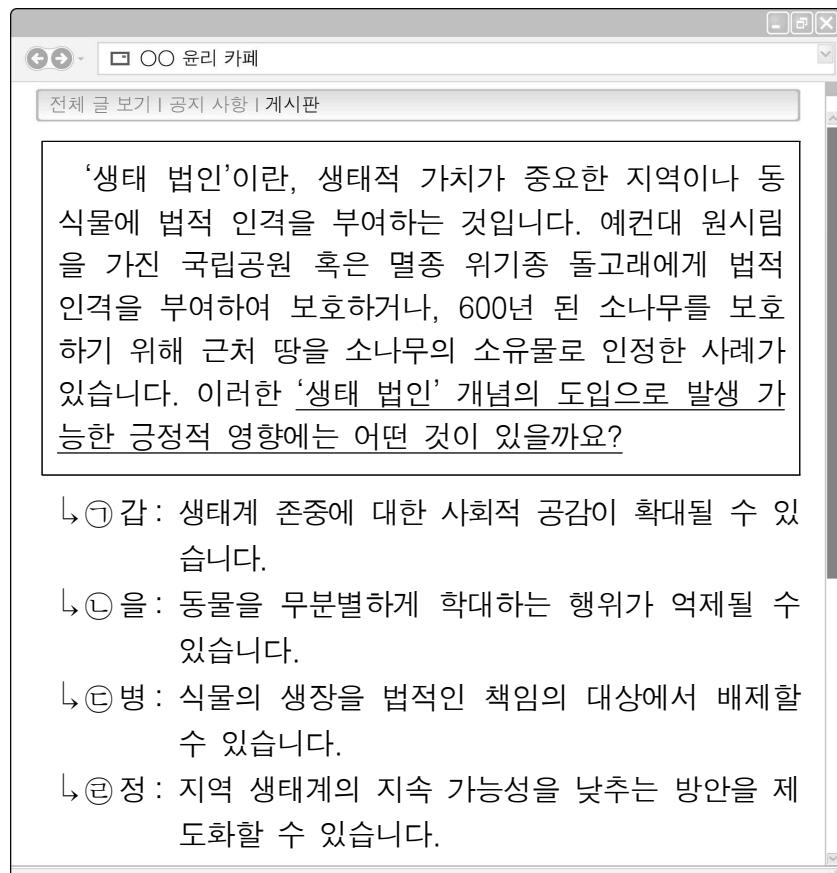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개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개인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추구했을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보기 >
- ㄱ. 국가가 모든 산업을 소유해야 공익이 실현될 수 있다.
 - ㄴ. 개인의 이기심은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 ㄷ. 사익 추구 과정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 ㄹ.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이 증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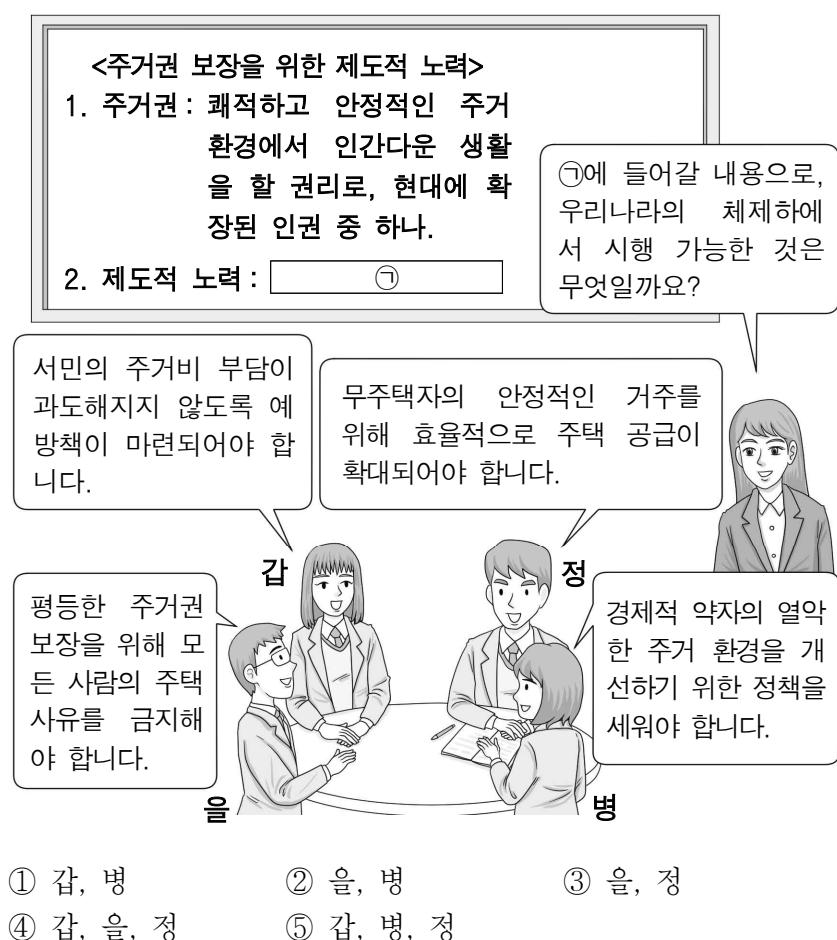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11. 그림은 인터넷 게시판 화면이다. 밑줄 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댓글만을 ㉠~㉡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12. 다음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갑, 병 ② 을, 병 ③ 을, 정
- ④ 갑, 을, 정 ⑤ 갑, 병, 정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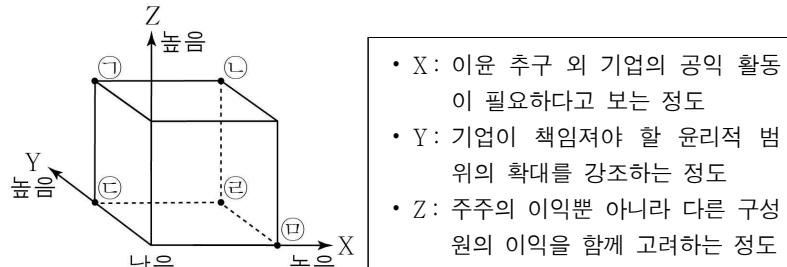
정의로운 나라의 수호자들은 생산자 계층과 달리 끼니를 제외하곤 농토, 아름다운 집, 장식품 등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행복하다. 정의로운 나라에서는 어느 한 계층만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행복하다. 왜냐하면 나라의 각 계층은 각자의 덕목을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 ① 계층 간의 구별이 소멸되어야 시민 전체가 행복해지는가?
- ② 생산자와 수호자가 각자의 덕을 갖춰야 정의가 실현되는가?
- ③ 모든 계층이 재산을 공유해야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는가?
- ④ 정의로운 나라에서는 권력을 획득한 자가 행복을 독점하는가?
- ⑤ 모든 계층은 각자의 사유물을 바탕으로 자급자족해야 하는가?

14.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기업은 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통한 이윤 획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시장 규칙을 준수하면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만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나) 기업은 합법적 이윤 추구와 사회 공헌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 공익 활동을 통해 이윤의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다음 대화에서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반도의 분단은 폭력입니다. 통일은 북한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폭력인 인권 침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여 한반도에서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증실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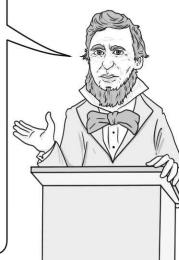
한반도의 분단은 손해입니다. 분단은 군비경쟁을 가져오고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므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여 한반도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도록 해야 합니다.



- ① 갑: 물리적 폭력과 달리 인권 침해는 폭력으로 볼 수 없다.
- ② 갑: 분단 상황과 북한 주민의 존엄성 훼손은 무관하지 않다.
- ③ 을: 경제적 이익 증진은 국가 정책 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④ 을: 분단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통일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 ⑤ 갑과 을: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16.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시민이 한순간만이라도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에게 맡겨야 한다면, 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인간이고 그다음에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보다 법을 존경하면 선량한 사람들까지 불의한 일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신의 양심에 위배될지라도, 노예제를 지지하거나 전쟁터에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언제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보기>

- ㄱ. 정의에 대한 존경심보다 법에 대한 존경심을 키워야 한다.
- ㄴ. 인권을 훼손하는 제도에 대한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
- ㄷ.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더라도 국가의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 ㄹ. 부당한 법에 저항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에 부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글의 입장에서 지지할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보사회에서의 디지털 격차는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신체적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 기기 활용이 서툰 노인 등은 디지털 역량 및 활용 수준이 취약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려는 개개인의 의지와 사회적 지원 방안 마련이 동시에 요구된다.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인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신체 특성을 반영한 보조 기기 개발 등이 필요하다.

<보기>

- ㄱ. 개인의 디지털 역량 수준에 맞는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 ㄴ. 신체적 특징에 맞는 디지털 보조 기기를 개발해야 한다.
- ㄷ. 디지털 기기 및 정보의 자율적 활용 능력을 키워야 한다.
- ㄹ. 디지털 격차는 정보사회의 등장으로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에 대한 해외 원조의 의무는 상대적 빈곤에 빠진 자국민에 대한 의무를 능가한다. 최대 효용을 추구하는 원리에 근거하면 우리는 자국민에게만 특별한 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효용의 크기로 볼 때, 가장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극단적 빈민을 도와야 한다.

- ① 국적을 기준으로 빈민들의 이익을 차별하여 고려하면 안 된다.
- ② 원조는 빈곤국에 속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③ 자국민에 대한 원조는 의무이지만 해외 원조는 의무가 아니다.
- ④ 효용성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없다.
- ⑤ 절대 빈곤의 해소보다 상대 빈곤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19.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물의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자와 사용자는 편향적 결과물의 생산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을: 맞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개발자와 사용자의 잘못된 의도에 따라 편향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 않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갑: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책임 주체가 아닙니다. 정부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개발자의 이윤 추구 활동과 결과물을 활용하는 사용자의 사적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 기업과 개개인의 도덕적 의지에만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 설계와 결과물 활용에 대해 규제해야 합니다.

- ①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회적인 파급력이 확대되고 있는가?
- ②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자는 책임의 주체에서 제외되는가?
- ③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개발자의 주의가 필요한가?
- ④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정책적 규제가 요구되는가?
- 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편향적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가?

20.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인간의 지식과 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은 오직 기술과 과학에 의해 좌우된다. 을: 인간은 대지 이용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검토해서는 안 된다.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flex-grow: 1; 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div> </div>

<보기>

- ㄱ. A: 자연의 평범한 구성원인 인간은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
- ㄴ. B: 생명 공동체 그 자체는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
- ㄷ. B: 자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ㄹ. C: 동식물뿐 아니라 물과 흙도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